

아들에 관한 약속 (로마서 1:1-6)

아들에 관한 약속이 복음이다. 중요한 응답을 받기 바란다. 오늘 찬양에서도 귀중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다 된 것이라고 하였다. 왜냐면 언약은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정말 기도할 수 있으면 언약하신 그대로 우리 인생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 안에는 많은 비밀이 있는데 그 중에 일번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 주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많은 증거들이 나타난다. 그리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인생이 된다. 참 놀라운 일이다. 그러면 기적이 연속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평소에 살다가 특별한 훈련이나 집회가 있으면 더 특별한 기도가 필요하다. 왜냐면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시간이기 때문이다. 말씀이 지속적으로 주어지고 누려지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 많은 응답을 누리게 되고 정복하는 전도자가 된다. 지난 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끝을 아는 자였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 영이 통한다. 한번 통한 이 영은 아무도 막지 못한다.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의 것, 이 땅에 하나님의 소원, 끝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에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과 상당한 거리를 느끼는 경우가 많다. 하나님의 소원의 끝을 알면 마음이 통하게 되는 것이다. 방향도 확실해 진다. 그것을 향해 살면 많은 기적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끝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하나님과 가슴이 통하는 자가 되기 때문이다. 모세는 가나안에 가야 하는 것을 단 한번도 의심한 적이 없다. 바울은 세계복음화, 로마 복음화에 인생을 걸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소원의 끝인 것을 이 두분은 알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의 끝인 인생을 산 것이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전부다 시대적인 인생을 살았다. 참 놀랍다. 이것 하나만 해도 인생에 완전한 답이 된다. 부족해도 그것을 향해 살면 되는 것이다.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것, 세계복음화가 우리의 언약이 되기 바란다. 미국, 남미, 렘넌트, 다민족이 그냥 기도제목이 아니라 마음의 언약이 되기 바란다. 그러면 성경과 같은 응답이 올 것이다. 인생 간단하다. 그리스도 믿고 언약으로 잡고, 이것을 향하여 사는 것이다. 그러면 머리터지게 기도 안해도 응답 온다. 기도 안했는데도 응답이 와야 되는 것이다. 세계복음화 위해서 렘넌트 세워야 한다. 금토일 시대 우리도 시작하기로 마음에 정하고 기도하고 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이 아이들에게 답이 나게 해야 한다. 그러면 부모들이 더 이상 보살필 필요가 없다. 스스로 자기 인생에 응답을 받는 것이다. 관련된 분들이 많이 기도하고 성실하게 참여하기 바란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중의 뜻 아니겠는가? 미국 교회에 문을 열어야 한다. 남미에 모든 나라에 문을 열어야 하지 않겠는가? 당연히 다민족 세워야 하고 렘넌트 세워야 한다. 이것이 이 시대의 미국과 남미의 망대교회이다. 그냥 교회가 아니고 미국과 남미가 바라보고 따라올 망대같은 교회라는 것이다. 그 내용은 안디옥교회에서 보여줬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1. 아들에 관한 약속

이제 로마서를 시작하는데, 로마서는 이미 로마에 있었던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이다. 사도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다. 이미 교회가 있었다. 이모양 저모양으로 복음이 전달되어서. 새로 생긴 로마교회가기 때문에 신학적, 영적 원리들을 설명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믿는 유대인들이 와서 영동한 소리들을 자꾸 하는 것이었다. 안 믿는 유대인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와서 성경을 가지고 할례 받아야 구원받고 안식일 지켜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이런 소문을 듣고 영적, 신학적, 원리적으로 설명을 한 책이 로마서이다. 그래서 로마서는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책으로 신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편지에서 사도바울이 제일 먼저 말한 것이 뭐냐면 복음이 뭔가 하는 것이다. 당연히 먼저 말해야 할 것이다. 많은 영적인 원리를 이야기 하는데 복음을 이야기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간단하게 요약해서 끝을 냈다. 사도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놀라운 구약에 대한 지식에다가 성경에다가, 그 표현이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다. 아주 선명하다. 여러 말이 필요 없다. 딱 찢어서 한 마디로 끝낸다.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다고 하였다. 자기는 사도고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했다. 사람들이 니가 그리스도를 봤냐? 니가 왜 사도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자기는 봤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봤다. 그리고 이 복음 때문에 선택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었다. 2절에 이 복음이 뭔가 설명을 간단하게 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무엇에 대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어디에? 성경에. 언제? 미리. 무엇을? 약속. 딱 문장 하나에 완전히 끝났다.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약속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것을 어디에 썼냐면 성경에 썼다. 다른데는 없다. 그리고 이 약속은 예언이다. 미리 말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한 요약이다. 그리고 3, 4절은 그러면 이 아들은 누군가를 말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3절에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다고 하였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오셨다는 것이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말했다기 때문이다. 어느날 갑자기가 아니라 약속한대로 오신 것이다. 4절은 영적으로는 죽은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그가 그리스도고 그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다. 그래서 요약하면 복음이 뭔가? 아들에 대하여 한 약속이다.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 성경에서만 찾을 수 있다. 요한 1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주 다른 말 필요 없다.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다. 이것 아니면 생명이 없다.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그러나 있으면 무조건 생명이야. 아무도 뺏지 못하고 막지도 못한다. 그 말이다.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야. 없으면 무슨 짓을 해도 생명 없다. 아들이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다. 구원이 없으면 모든 것 다 가져도 소용없다. 그래서 아들에 관한 약속, 1번 믿으면 구원 준다는 것이다. 그래서 천국에서 영생하게 해 주겠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24시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 믿는 자는 저주에서 해방된다. 그 다음에 아들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 너 기도하면 응답해주겠다. 그래서 영적 저주 뿐 아니라 육신적 저주에서도 나오게 해주겠다. 저주에서 완전 해방이다. 두 번째 약속이다. 세 번째 약속은 아들을 누리고 선포하면 내가 뱀의 머리를 깨겠다. 너 그리스도 언약 잡으면 반드시 영적으로 승리한다. 오직 이 언약을 잡아라. 어떤 문제도 해결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삼직이다. 삼직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일을 전부 요약해서 세가지로 정리한 것이다. 그것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다. 아들에 관하여 약속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 3직이다. 그 내용을 조금더 풀어 썼다. 그것이 성경이다. 거기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다. 그것이 전부 3직 안에서 이루어진다. 피흘리시고 죽으심으로 3직을 완성하셨다. 그래서 이 세가지 약속이 모든 문제 해결이다. 이 약속을 누린 자는 성경과 같은 응답을 받는 것이다. 그냥 듣지 말고 생각을 하고 마음에 확인을 해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해야 한다. 그러면 보고 증인된다. 인생도 회복되고 문제도 떠나가고 뱀의 머리 박살 난다. 이 세가지 정리된 약속 안에 모든 약속이 다 들어 있다. 그리고 이것을 전하는 자는 현장에서 뱀의 머리가 깨지는 것이다. 이 세가지 약속을 누려야 하고 이것을 전해야 한다. 무엇으로 내가 내 인생을 정복하겠는가? 내가 어떻게 내 문제를 정복하고 땅 끝까지 증인될수 있겠는가? 내가 현장에서 제자를 찾아야 하는데, 눈뜨고 돌아다니겠다고 찾아지는 것이 아니다. 전부 이 세가지 비밀을 언약으로 잡을 때 가능하다. 그 때 인생 정복하게 된다. 문제 정복하고. 놀려 있다. 우리는 뱀의 머리 깨는 것이다. 다른 사람 저주도 깨주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역사하는 뱀의 머리로 깨주는 것이다. 그 답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데, 세가지 직분이다.

내가 무슨 망대를 세워야 하는가? 그리고 그 망대를 어떻게 세

우는가? 세가지 아들에 관한 약속으로 가능하다. 이것이 우리의 언약이고 방법이다. 이 때 세워진 망대가 참 망대이다. 모든 망대는 전부다 이 세가지 아들에 관한 약속이 들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세가지 아들에 관한 약속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뱀의 머리를 깨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러므로 언약을 잡아라. 누리라는 것이다. 그래서 아들에 관한 약속의 망대가 근본 망대이다. 이것이 출발망대이고 끝까지 가는 망대이다. 다시 한번 아들에 관한 약속이 우리의 언약이 되기 바란다. 그냥 기도시간에 말하는 정도가 아니다. 계속 하고 있으면 이것이 언약이 된다. 다른 힘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고백을 지속하면 이 힘이 깊어진다.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끝이 없다. 죽을 때까지 매일 24시간 다 해도 거기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장, 사업, 자녀도 이 언약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사단이 무너지고 인생이 살아나는 축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란다.

## 2. 부르심을 받은 자

6절에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였다. 우리도 놀라운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려고 우리를 불렀다. 하나님이 안 부르면 불가능이다. 에베소서 1: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였다. 5절에 보면 왜 택했느냐 하면 다른 이유가 없고 깊은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왜 그렇게 했냐면 6절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부르신 목적이다. 아무 이유없이 은혜로 구원해주시는 것이다. 조건을 따지면 우리는 해당이 아무도 안된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이 놀라운 일이 그리스도, 곧 아들에 관한 약속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열 번 이상 나온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아들 안에 있다는 증거이다. 이 아들 안에 있는 그 약속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다. 오직 아들이 있는 자에게만 구원이 있다.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영혼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육신 구원도 아들 안에 있다. 지속적으로 응답을 받고 문제를 경복할 방법이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다. 구원을 위하여 부르셨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다.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전도는 우리의 기도응답과 연관이 있다. 시대를 정복한 모든 사람들은 전도자였다.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누릴 때 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소원을 향하여 인생을 사는 것이 전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 이 하나님은 소원도 있으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주기를 원하는 것이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소원의 끝을 보여주셨다. 우리에게는 인생에 굉장한 참고가 되는 것이다. 이 전도는 우리의 기도 응답에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다. 요셉시대에는 애굽에 복음을 전하는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모세시대에는 가나안에 복음 국가를 만드는 것이 뜻이었고, 사무엘 시대는 블레셋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뜻이었다. 다니엘 시대는 이 복음의 권세와 능력을 큰 나라 바벨론에 전달하는 것이었다. 바울에게는 이 하나님의 소원의 끝이 이방이었다. 그리고 핵심 국가가 로마였다. 이분들에게는 그 시대의 하나님의 소원의 끝이 인생의 끝이었다. 어렵지 않다. 하나님의 이 시대의 끝이 내 인생의 끝으로 다가오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할려고 하면 안된다.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면 되어지는 것이다. 아주 틀림이 없다. 그리스도를 누리면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삼직을 매일 기도하고 기도 대신에, 기도의 핵심에 넣으면 된다. 그냥 시작을 해보라. 계속 하나님이 거기에 관련된 단어들을 주신다. 그리고 삼직 언약을 고백하는 기도가 자꾸만 깊어지고 넓어지게 되어 있다. 더 영적인 힘을 얻게 되어 있고 더 치유되고 눈이 열리게 되어 있다.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그게 진짜로 떠오르게 되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을 향하여 사는 인생의 출발

이 이때부터가 진짜가 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그냥 산다. 왜 사는지 질문도 없이. 그러면 내가 어디를 향해 산다는 것인가? 이 생각도 내 맘대로 안된다.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내 맘대로 안되는 것이다. 그리고 내 생각이 시간표가 되어 생각해도 답이 정확하게 안 나온다. 그 시간표도 아들에 관한 약속이다. 그리스도를 누리면 어느날 이 끝이 내 끝이다. 그러면 그것을 향해 사는 것이 너무나 쉽다. 안되는데 할려고 하니까 힘이 든다. 그런분은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아라.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그게 잘 안된다. 이유가 뭐냐? 나인가 환경인가? 하나님은 사단이라고 말한다. 그 머리를 깨야 이 저주에서 나온다. 무엇을 가지고 이 뱀의 머리를 깨겠는가? 노력으로 되나, 힘으로 되나? 그리스도 왜에는 답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뱀의 머리를 깨고 그 저주에서 나와야 한다. 하나님의 소원이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그게 저주이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그거밖에 안되고 응답도 그거밖에 안되고. 우리가 믿는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 인생이 거기까지 가게 하려고 하신 것 아닌가? 우리가 믿는 자라면 너무나 당연히 되어야 하는데 왜 안되는가?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고 전쟁을 안해서 그렇다. 전쟁하면 하나님의 때에, 시간이 걸리는 안걸리는 되어지게 되어 있다. 이것이 아들에 관한 약속이다. 그는 복음이다. 아들에 관하여 한 모든 약속의 말씀이 복음이다. 이 복음의 말씀은 단 한마디로도 충분하고 완전하게 뱀의 머리를 깨는 것이다. 너가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이 한마디로 끝인 것이다. 모든 육신문제 해결하는데 이 한마디로 끝이다. 더 이상 약속이 필요 없다. 너 이 아들을 믿으면 구원해 주겠다. 천국의 영생 뿐 아니라 니가 당하는 육신적 저주에서도 건지겠다. 다른 약속 필요 없다. 이것을 충분하니까. 아들에 관한 약속, 그 단어 하나가 뱀의 머리를 깨는 것이다. 답이 이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것을 해야 한다. 죽는 날까지 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끝내서 거기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것 말고는 길이 없기에 이 길이 가장 빠른 길이다. 다른 길은 안되는 것이고 오직 여기에서만 가능하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이다. 가장 영적 문제가 심각한 미국 아닌가? 세상의 중요한 몇 개 국가가 우리의 끝이다. 놀라운 237, 치유, 서밋 운동에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미국, 남미, 렘넌트, 다민족이다. 이 운동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잡은 단어가 100팀 100지교회이다. 경제도 일어서기를 바란다. 언약으로 잡고 기도할 분들이 많이 나오기 바란다. 의미있는 일이다.

성경의 결론을 말하라면 많이 있을 것이다. 다양한 길이 있을 것이다.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확한 것을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다. 정확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이다. 이 두가지가 정확한 언약이다. 그 안에서 두가지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잡아야 할 단어들이 있다. 특별히 주신 언약들이 있다. 그것이 이면계약이다. 이것이 언약이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만일 언약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라고 하면 회한할 것이다.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야 한다. 때가 되면 그렇게 된다.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아야 한다. 나는 이 시대에 참 복음을 위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언약 잡아라. 출애굽때도 그랬고 하나님이 사도바울을 부를때도 그랬다. 사무엘의 미스바 운동도 그랬다. 엘리사의 도단성 운동도 그랬다. 원리는 똑같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언약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가 오는 것이다. 4대 기도제목이 언약이 되기 바란다. 개인적으로도 언약을 잡고 있는 것이 있다. 역사하는 것은 똑같은 원리이다.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할 말씀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리고 가장 항상 하는 것이 뱀의 머리를 깨는 것이다. 하나님이 본래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말씀하신 답이다. 뱀의 머리를 깨야 한다고. 그러면서 내 인생의 문이 열리는 것이다. 전도의 문, 선교의 문, 경제, 자녀의 문이 열리는 것이다. 이 언약이 아들에 관한 약속이다. 다시 한번 언약되기 바란다. 진짜로 한번 생각해보고 조용히 혼자서 언약으로 잡으라. 메시지를 듣는 이유는 이 시간을 가질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이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